

TamZamía

아프리카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여행의 백미다.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웅고롱고로 분화구 국립공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산을 품고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이름난 잔지바르도 빼놓을 수 없다.

글·사진 성연재 기자



A savanna landscape with acacia trees and a herd of zebras. The zebras are in the foreground, standing in tall, dry grass.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lush green acacia trees under a bright sky.

1 Serengeti

‘야생동물의 낙원’ 세렝게티

그곳엔 진짜 야생이 있었다. 눈앞에서 톰스가젤을 사냥하기 위해 사자가 용수철처럼 튀어 나갔다.
그 장면 하나로 충분했다. 나는 진정한 아프리카를 목격한 것이다.



술한 다큐멘터리와 영화, 뉴스를 통해 접했던 세렝게티(Serengeti)를 다녀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TV를 통해 화면으로 접하는 것이 훨씬 인락하고 편안하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멀고 험한 아프리카를 값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다녀오는 이유는 뭘까. 그곳에서 ‘리얼한’ 야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사이족 언어로 ‘끝없는 평원’을 뜻하는 세렝게티는 면적이 1만4천750km²에 이르는 탄자니아 북서부의 거대한 자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 되는 크기다. 세렝게티 여행의 최적기는 우기를 지난 뒤 새싹이 자라는 6~9월과 1~2월이다. 초식 동물들의 출산기도 이때다.

세렝게티의 관문 아루샤

비행기 착륙 도중 원편 창문을 통해 검은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높은 고도의 산이라면 혹시...’ 맞았다. 착륙 후에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킬리만자로라고 한다. 운이 좋았다. 게다가 사진까지 찍는 데 성공했다. 세렝게티를 가려면 킬리만자로 산 인근에 있는 킬리만자로 공항을 통해 아루샤(Arusha)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인구 27만 명의 아루샤는 메루산과



1 하늘에서 본 킬리만자로산 2 자리다툼 하는 하마들
3 하품하는 악어 4 로지를 찾아온 원숭이



나지막이 “사냥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순간 사자의 뒷발에 긴장감이 느껴진다. 숨 막힐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즉시 렌즈를 400mm로 바꿔 끼고는 암사자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다. ‘사자가 톱슨가젤 목을 낚아채면 속사로 그 장면을 찍어야지’ 그런 상상을 몇 초나 했을까. 순식간에 사자의 모습이 사륜구동 차량 뒤로 사라졌다.

차량 몇 대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시야각이 좁은 400mm 망원렌즈로 사자의 모습을 쫓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럴 때는 어느 때처럼 대상을 추적하면 안 된다.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오른쪽 눈으로 파인더를 바라보고 왼쪽 눈은 감아야 하는 데, 이때는 양쪽 눈을 동시에 떠야만 한다. 망원렌즈를 바라보는 오른쪽 눈은 사진기 내 장면을 주시해야 하며, 왼쪽 눈은 전체를 조망해서 재빨리 사자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마치 축구 경기 취재를 하러 간 사진기자가 코너킥을 촬영해야 할 때와 비슷한 순간이다. 공이 어느 선수 머리 위로 떨어지는지 왼쪽 눈으로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순간 사자가 차량 뒤에서 나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러나 사자는 곧바로 멈춰서 버린다. ‘대체 왜?’ 의아해서 고개를 들어 보니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던 톱슨가젤 떼는 사자가 튀어나옴과 동시에 용수철처럼 튀어 수십m 뒤로 물러나 있었다. 딱 그만큼, 사자가 쫓아오기 힘들 정도까지만 물러난 것이다. 마치 스포츠 경기의 물을 지키듯이 야수와 먹이 떼는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멈춰 섰다.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자를 쫓던 사람들도 차량에 가려 사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사자도 사냥에 실패했다. 아쉬움은 컸지만, 포식자와 먹이 사이에 오케스트라와도 같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큰 여운을 줬다.

400mm 망원렌즈가 필요한 이유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400mm 망원렌즈를 갖고 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사자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고, 코끼리는 너무 멀리 떨어진 데다 떼로 뭉쳐져 있어 렌즈 운용이 까다로웠다. 그때 저 멀리 죽히 200m가 넘는 거리에 있던 작은 웅덩이에서 새끼 코끼리 한 마리가 막 땅 위로 올라오는 장면이 맨 눈으로 보였다. 멀리 있었지만, 구덩이에서 진흙 목욕을 한 뒤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정확한 위치 가능성이 어려웠다. 다시 양쪽 눈으로 코끼리를 찾는 순간 프레임 속으로 아기코끼리 한 마리의 모습이 들어왔다. 셔터를 눌렀고 커다란 나무를 배경으로 아기코끼리가 진흙 목욕 후 반들거리는 모습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온 좋게 담을 수 있었다.



사파리 차량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사자

2

The Lion Doesn't Sleep Tonight

사자는 오늘밤 잠자지 않는다

세렝게티의 현실은 만화 주제곡 가사와는 달랐다. 사자는 밤에 잠을 자지 않았다. 주린 채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사냥에 나선 사자의 모습은 어쩌면 서글프기조차 했다.

사자는 오늘 밤 잠자지 않는다네

영화 '라이온 킹'의 OST 가운데 하나인 '사자는 오늘 밤 잔다네'(The Lion Sleeps Tonight)라는 팝송이 있다. '정글의 사자는 오늘 밤 잠을 잔다네~'(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밀림의 왕자 사자는 한밤중 주린 배를 움켜쥐고(취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것을 찾아 밤새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다. 밤에 세렝게티에서 만난 사자의 모습은 만화 라이온 킹에서 봤던 늙은 '밀림의 왕자'의 이미지를 사정없이 깨버렸다. 사자는 그저 배고픈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다.

세렝게티 '워킹 사파리'

세렝게티에는 이를 머물렀다. 첫날 저녁에는 '워킹 사파리'(Walking Safari)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차량이 아니라 두발로 세렝게티 땅을 밟으며 풍경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차량에서는 놓치기 쉬운 세밀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마침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어 숙소 뒤편의 야트막한 언덕을 서둘러 올라갔다. 걸어서 체험하는 사파리라 긴장감이 더했다. 발밑에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몰라 긴장하며 라이플을 든 카드를 뒤따랐다.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긴장감이 더해졌다. 다행히 큰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걷는 동안 동물을 목격하지 못한 것은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다.

코스 마지막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었는데 유럽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지는 해를 감상하고 있었고 주변 나무에 걸려 있는 누(gnu, 영양의 한 종류)의 머리뼈에 석양빛이 비치고 있었다. 말없이 먼저 앉아있던 유럽인들과 함께 석양을 바라봤다. 리조트 직원들이 시원한 맥주와 탄산음료를 한 상자 날라왔다.

언제라도 동물들이 나올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즐기는 황혼은 짜릿한 흥분을 줬다. 노르웨이에서 온 20대 여성은 추운 나라를 벗어나 세렝게티에 오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한다. 모두 즐겁게 음료와 함께 지는 해를 감상하며 여유를 즐겼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야생동물들이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한 헤드 랜턴을 켜고 숙소로 돌아왔다. 일행 중에 헤드 랜턴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나 혼자였다.

'나이트 사파리'

그다음 날 온종일 사파리를 마친 뒤 또 다른 사파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트 사파리(Night Safari)였다. 전날은 도보 사파리였다면 이번에는 사륜구동차를 타고 짙은 어둠을 가르며 야생동물들을 관람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예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겪어봤던 나이트 사파리를 떠올리며 '바나나를 준비해야 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치앙마이에서는 사람들의 먹이 주기에 익숙해진 동물들이 차 내부까지 고개를 들이밀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그때 가장 재미있



1

1 워킹 사파리에 나선 현지인 2 워킹 사파리에서 만난 누의 해골 머리뼈

있던 것은 기린이었다. 그 큰 기린이 구부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차 내부로 몸을 내밀었던 기억이 났다. 일행들에게 '양배추나 과일 등을 준비하면 좋다'는 조언까지 했다. 그러나 내 조언은 엉터리로 판명이 났다.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달리는 사륜구동차 근처로 다가오는 야생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다. 한밤에도 사라지지 않는 먼지와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비춰대는 서치라이트 세례 속에 한두 마리씩 야생동물을 발견하는 느낌은 경이로웠다. "앗 저기다. 저기 사자다." 짧게 외치면 운전사가 조심스레 사자 근처로 접근해 서치라이트를 비췄다. 먹잇감을 찾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사자의 모습에서는 밀림의 왕자가 주는 위엄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최상위 포식자인 그들도 힘들게 먹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낮에 보이지 않던 토끼도 눈에 띄었고 몽구스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이에나 떼가 등장했다. 하이에나는 가족이 군락을 이루고 수풀 속에서 서식하고 있었는데, 서치라이트를 비추자 호기심이 발동했

는지 이곳저곳을 오가며 번갈아 모습을 드러냈다. 사파리에 함께 나선 한 중년 남성은 나이트 사파리가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야생동물의 야간 생활을 침범하는 것이 맘에 걸린다는 것이다. 사자는 확실히 야행성 동물이다. 세렝게티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자는 사자들이 많은 이유다. 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시각 아닐까요? 낮에 본 것처럼 사자는 낮에는 잠을 자지만 밤에 잠을 자지 않잖아요."

야생과는 많은 천 한 조각...아프리카의 밤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는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대지를 붉게 물들였다. 세렝게티에서의 숙소는 글램핑과 비슷한 숙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미리 설치된 텐트에 화장실과 집기들이 설치돼 있다. 위쪽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자 양철지붕이 설치됐을 뿐 한국의 글램핑과 비슷하다. 이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숙소를 로지(lodge)라고 부른다.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가장 세렝게티다운 숙소라 할 만하다.





하이에나 새끼 한 마리가
불빛을 보고 수풀 바깥으로 나서고 있다.



1 나이트 사파리에 나선 관광객과 몽구스 2 누 새끼 한 마리가 혼자 초원에 남겨져 있다. 3 보금자리 바깥으로 나온 하이에나 새끼



2



3

우리는 세렝게티 지역의 서북부에 자리 잡은 중급 가격대의 이코마 와일드 캠프(Ikoma Wild Camp) 로지에 묵었다. 리조트라 해봤자, 대부분의 숙소가 캔버스 천으로 된 글램핑 시설이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세렝게티 중앙과 가깝다. 중앙 지역으로 갈수록 포시즌스 등 고급 리조트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포시즌스의 경우 2

인 기준 1박에 200만원가량이다. 우리가 머문 숙소의 10배가 넘는다.

체크인 시 마사이족 안내인들이 경고한다. 반드시 여러 명이 함께 다니며, 비상시에는 열쇠에 매달린 호루라기를 불라는 것이다. 낮에 사파리 투어를 갈 때도 반드시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가야 한다고 주의를 시킨다.

첫날 저녁에는 '워킹 사파리' (Walking Safari)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결어서 체험하는 사파리와 긴장감이 더했다. '밭밀에 어떤 것이
있을지'로 몰라 긴장하며 라이플을 든 가드를 뒤따랐다.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긴장감이 더해졌다.

원숭이가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흔히 원숭이를 가볍
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가장 위험한 야수일 수도
있다. 자유롭게 계단 위로 뛰어오르는가 하면 지붕 위
를 날아다닌다.

처음에는 '뭐 별일 있겠어'라며 족히 100m는 떨어진
식당까지 혼자 다니곤 했는데, 야간 사파리에서 근처
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가족을 보고 나니 그런 생
각이 싹 달아나버렸다. 밤중에 잠을 청하려는데 뭔가
거친 숨소리가 바깥에서 들린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다. 카메라와 후레쉬를 들고 바깥으
로 나왔는데, 매회 수없이 많은 얼룩말이 내 숙소 주
위를 어슬렁거린다. 그들이 내뿜는 숨소리였다. 처음
에는 후레쉬를 들어 이곳저곳을 비춰 봤으나 이윽고

어둠에 눈이 익숙해졌고, 그들의 먹이활동을 방해하
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후레쉬를 껐다.

함께 숙박한 룸메이트는 캠핑이라면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이 장면을 목격한 뒤 아프리카 글
램핑에 단단히 매료됐다. 야생동물이 텐트 바로 바깥
에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흥분을 가져다줬다. 다음 날
아침 지저귀는 새들의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온다.
오늘은 또 어떤 아프리카가 날 반겨줄 것인가?



Ngorongoro

신비로운 분지... 응고롱고로

화산 폭발로 생긴 세계 최대의 분화구 응고롱고로. 여의도 면적의 31배나 되는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포유류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야생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는 아웃도어에서 맛보는 '부시 런치'는 꿀맛 같다. 쌀밥을 주로 먹는 탄자니아인의 메뉴는 우리 입맛에도 꼭 맞다.



1

1 응고롱고로 전망대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관광객들
2 전통방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마사이족

세렝게티 남쪽에는 세계 최대 화산 분화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응고롱고로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응고롱고로는 200만 년 전 킬리만자로보다 높고 큰 산이었다고 한다. 이 산이 화산 작용으로 붕괴하면서 넓이가 8천300km²에 이르는 대평원이 됐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분화구 중 하나로, 아프리카에서 포유류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얼룩말과 사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물이 산다.

응고롱고로라는 말은 소 목에 단 위낭의 탄자니아 의성어다. 응고롱고로는 원래 세렝게티의 일부였지만 이곳에 살던 마사이족은 그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까지 넘보게 됐다. 게다가 마사이족은 양, 소, 당나귀 등을 기르며 생활하는 유목민이다. 적게는 수십,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가축을 몰고 다니는 이들 탓에 야생동물과 서식지 경쟁이 심해졌다. 이에 탄자니아 정부는 1959년 응고롱고로를 세렝게티에서 분리했다. 지금도 5만 명 이상의 마사이족이 이 지역에서 가축을 기르며 생활한다.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세렝게티를 가려면 아루샤에 이어 반드시 응고롱고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세렝게티에서 나오면 다시 응고롱고로를 가게 된다. 처음 들렀을 때는 아루샤에서 세렝게티를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다. 바닥으로부터 600m 위 지점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곳은 분화구 지름만 약 20km나 돼 한눈에 전망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시원하게 펼쳐진 푸르른 초지에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1



3

- 1 부시 런치를 즐기던 관광객이 마라부황새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 2 응고롱고로에서 만난 개코원숭이떼
- 3 응고롱고로 분지에서 만난 혹멧돼지
- 4 누 떼와 얼룩말 떼가 이동하고 있다.

응고롱고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뒤로하고 분화구가 만든 거대한 분지로 내려갔다. 신이 창조한 또 다른 세계와의 조우다. 세렝게티의 초지와 비교해, 응고롱고로의 초지는 푸르르기 이를 데 없다. 응고롱고로가 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언덕 위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버펄로 떼를 만났다. 버펄로 떼를 거치고 나니 누 떼가 이동한다. BBC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그런 대규모 이동은 볼 수 없었지만, 길게 줄을 지어 이동하는 누 떼를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다.

누 떼의 이동에 정신을 잃고 바라보다 뒤늦게 앞차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후다닥 따라붙었는데 그쪽엔 일행 차량 외에도 20여대의 차량이 한 곳에 밀집돼 있었다. 코뿔소가 나타났다. 서둘러 망원렌즈를 꺼냈다. 잠시 후 콩알만큼 작은 크기로 코뿔소가 파인더에 잡혔다. 육중한 몸이 멀리서 봐도 쿵쿵거리며 걷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응고롱고로에서 다섯마리 밖에 없다는 그 코뿔소 가운데 한 마리다. 앞차에 탄 사람들은 코뿔소를 제대로 봤다며 콧노래를 부른다.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름다운 초원 펼쳐진 응고롱고로

꿈만 같던 이틀을 보낸 뒤 세렝게티를 떠나는 길. 가끔 보이던 나무와 수풀은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다. 세렝게티를 벗어나니 누렇게 마른 초지만 끝없이 이어진 지역이 나타난다. 초지 뒤로 수평선이 펼쳐진다. 태어날 때부터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랐던 한국 사람 눈에는 신기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수평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이다. 처음 봤을 때는 전망대에서 전망만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 응고롱고로의 진수를 맛볼 차례다. 이틀 동안 세렝게티에서 수평선만 바라보다 보니 이번에는 높은 고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인간은 이렇게 적응력이 빠른 동물인가 보다.



2



4



1

1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부시 런치
2 아웃도어에 차려진 부시 런치



2

꿀맛 같은 부시 런치

웅고롱고로에서 가장 멋진 일은 부시 런치(Bush Lunch)를 맛본 것이었다. 야생동물들이 어슬렁거리는 아웃도어에서 맛보는 ‘부시 런치’는 꿀맛 같다. 웅고롱고로 한쪽으로 가니 커다란 나무 아래 식탁이 마련돼 있다. 자리에는 ‘프라이빗 피크닉’이라는 표시가 있다. 고급스럽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예약이 필수인데 가격이 상당하다. 이 자리는 탄자니아의 가장 큰 여행사 중 하나인 자라(Zara)사 소유다. 그래서 자라 고객들만 이곳에서 식사할 수 있다. 이 자리를 예약하지 않았다면 ‘퍼블릭 피크닉’ 자리를 이용하면 된다. 이미 한 무리의 서양인들이 식탁 위에서 멋진 모습으로 식사하고 있다. 물어보니 독일의 쾰른 지역에서 왔다고 한다. 사륜구동 차량이 여러 대 멈춰서 있는 자리 앞에는 조리된 음식이 준비돼 있었다. 메뉴를 보니 모두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할 것들이다. 쌀밥과 볶음밥, 양념이 된 생선과 심지어는 양념이 된 나물도 있다. 쌀밥을 주로 먹는 탄자니아인의 메뉴는 우리 입맛에도 꼭 맞는다. 여유로운 점심을 마치고 웅고롱고로를 떠났다. 보고 즐길 것이 너무 많은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다시 온다면 반드시 웅고롱고로에서 숙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4 Zanzibar

동아프리카의 보석 잔지바르

잔지바르(Zanzibar)는 론리 플래닛의 '2020년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10'에 선정된 곳이다.
'동아프리카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이 지역은, 동시에 과거 동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전진
기지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탄자니아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에서 페리를 타고 잔지바르에 도착하니 외국인들은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다시 찍어야 했다. 잔지바르는 탄자니아의 자치령이기 때문이다. 잔지바르로 가려면 다르에스살람의 아잠 마린 페리(Azam Marine Ferry)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곳은 매우 혼잡스러워서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짐꾼들이 페리 앞까지 짐을 옮겨준다. 페리에 승선한 뒤 호기심에 갑판 위로 올라가 봤는데 탁 트인 하늘 아래 전통 배인 도우(Dhow)가 유유히 지나간다. 바깥 갑판 위 좌석이 훨씬 상쾌하게 느껴진다.

스톤타운

입국 심사대를 거쳐 나오니 잔지바르인 안내인 한 명이 반갑게 인사한다. 현지 가이드인 탈리브 새반 라잡 씨다. 그를 따라 도시를 거닐다 보니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식민지 시대의 흰색 건물들이 즐비하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톤타운(Stone Town)이다. 잔지바르는 과거 포르투갈, 오만, 영국 등의 지배를 받았는데, 건축 양식도 이들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6세기 초 아프리카에 진출한 포르투갈인들은 각 해안에 거점 항구를 만들고 노예를 선박에 태워 본국으로 보냈는데, 그 거점 항구 중 한 곳이 바로 잔지바르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에는 오만 점령 때 지어진 고색창연한 아랍풍 석조 건축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스톤타운 안에는 모스크만 83곳이 있는데, 불교 사찰(5곳)과 유대교 회당(1곳)도 있다.



하늘에서 본 잔지바르 스톤타운



1



- 1 낡았지만 아기자기한 스톤타운의 가게들
- 2 노예들을 묶었던 쇠사슬
- 3 노예들이 묶여있던 좁은 방
- 4 프레디 머큐리의 생가

이 공개돼 있다. 방바닥에는 노예들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보인다. 경매가 이뤄지기 전 하루가량 노예들이 머무르던 방이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있던 방은 정원이 75명이다. 다른 한 곳은 남자 노예 50명이 머물렀다고 한다. 잔지바르에서 400년 동안 노예무역을 통해 팔려나간 아프리카인은 100만 명이 넘는다. 노예무역이 폐지된 1873년 영국인들은 노예시장이 있던 이 자리에 잔지바르 대성당을 지었다.

프레디 머큐리 생가

그룹 퀸의 리드 보컬인 록 가수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은 파루크 바루사라(Farrok Kh Bulsara)다. 1946년 영국 총독부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여덟 살에 인도 뭍마리로 유학 가기 전까지 잔지바르 스톤타운에서 살았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건물은, 인근에 있던 템보 호텔이 2002년 사들여 현재 객실로 활용하고 있다. 170달러(약 20만원)가량을 주면 프레디 머큐리의 방에서 1박을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누군가 투숙을 하고 있어 내부를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비교적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 이 3층짜리 건물은 현재 ‘머큐리 하우스’로 불린다. 무슬림이 99%를 차지하는 잔지바르 사람들은 양성애자로 알려진 머큐리를 달가워할 수 없었다. 이는 출생지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이유이기도 하다.



2



3

노예무역 전진지

포르투갈인들의 점령으로 노예무역을 시작했다. 17세기 오만의 술탄이 건너와 포르투갈인들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노예무역은 계속됐다. 술탄은 자신들의 수도였던 무스카트(Muscat)를 버리고 잔지바르를 수도로 삼았다. 이후 영국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노예시장 문을 닫았다. 1873년의 일이었다. 탐험가 리빙스턴의 간곡한 호소가 영국인들을 움직였다고 안내인 라잡 씨가 말했다. 잔지바르의 스톤타운 한가운데 포르투갈인과 아랍인들이 운영하던 노예시장 옛터가 있었다. 당시 노예들이 머물던 지하방 2곳



1



2

스파이스 투어

잔지바르를 유명하게 만든 것 중에는 향신료도 빼놓을 수 없다. 향신료 농장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을 스파이스 투어 (Spice Tour)라고 하는데, 후추와 바닐라, 콩 등 다양한 향신료 열매를 맛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잔지바르 향신료는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농장 한 군데를 둘러 향신료 투어를 다녔다. 안내인을 따라 1시간가량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새 투어가 끝났다. 잔지바르에서 향신료 투어를 할 수 있는 농장은 10여 곳에 이른다.

아름다운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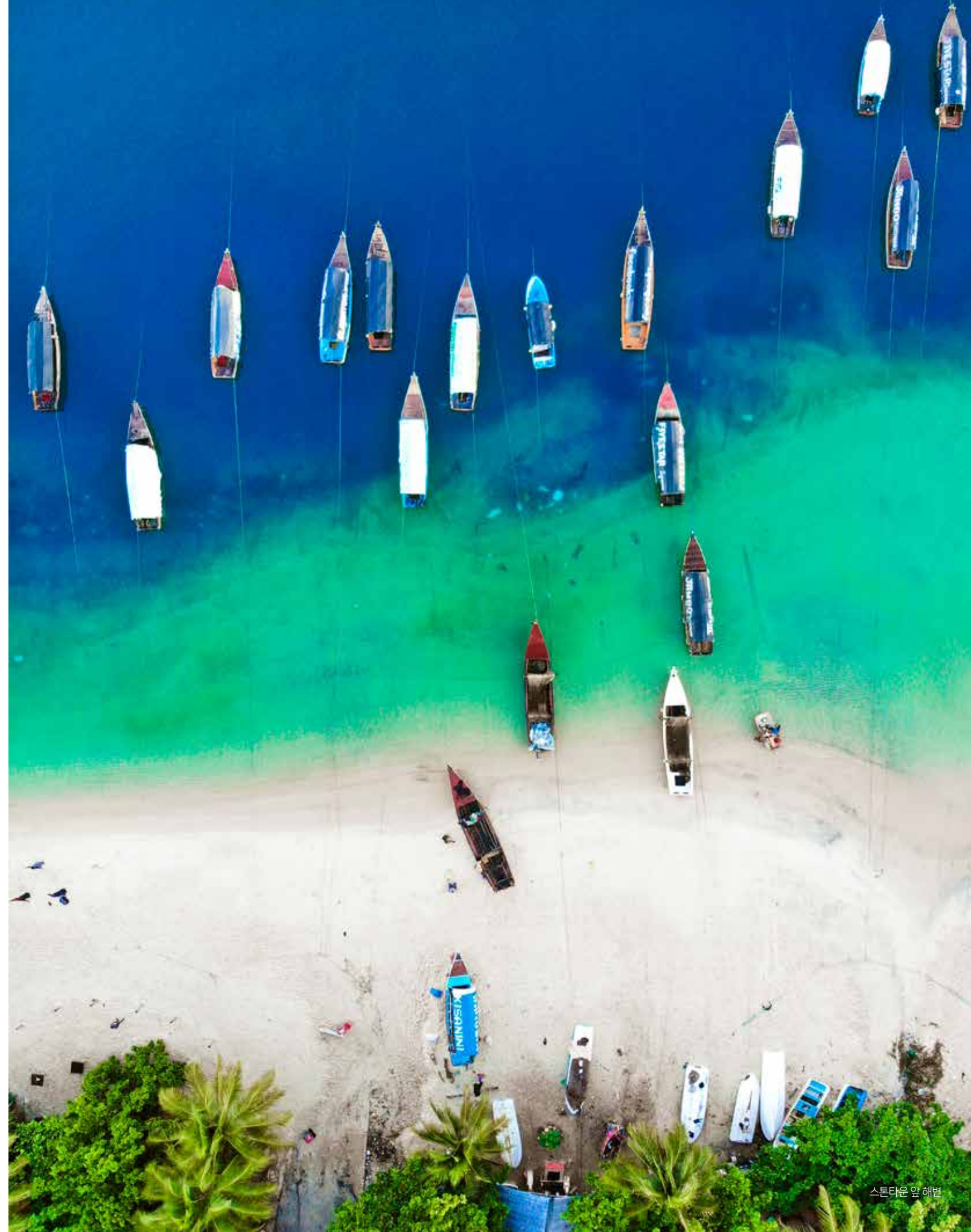
세렝게티에서 초원의 사파리를 즐겼다면, 이곳 잔지바르에서는 바다의 사파리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는 '블루 사파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루 동안 배를 빌려 이곳저곳 아름다운 곳을 감상하고 스노클링을 하는 등 아름다운 잔지바르의 바다를 온몸으로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활발한 액티비티보다 잔잔한 바닷가에 누워 선탠하거나 가족끼리 즐거운 해변 투어를 하고 싶다면 섬 북서부에 있는 켄드와 해변(Kendwa Beach)이나 북부에 있는 넝위 해변(Nungwi Beach)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백사장이 아름다운 두 해변에는 최고급 리조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켄드와 해변을 찾았을 때는 마침 붉은 노을이 하늘을 수놓고 있을 때였다. 가족 단위, 또는 연인들이 해변에서 평화롭게 낙조를 즐기고 있었다. 그 속으로 전통 복장을 한 한 무리의 마사 이족이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보인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과 그 아래 건강미 넘치는 마사이족들의 모습은 잔지바르를 떠올릴 때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남을 듯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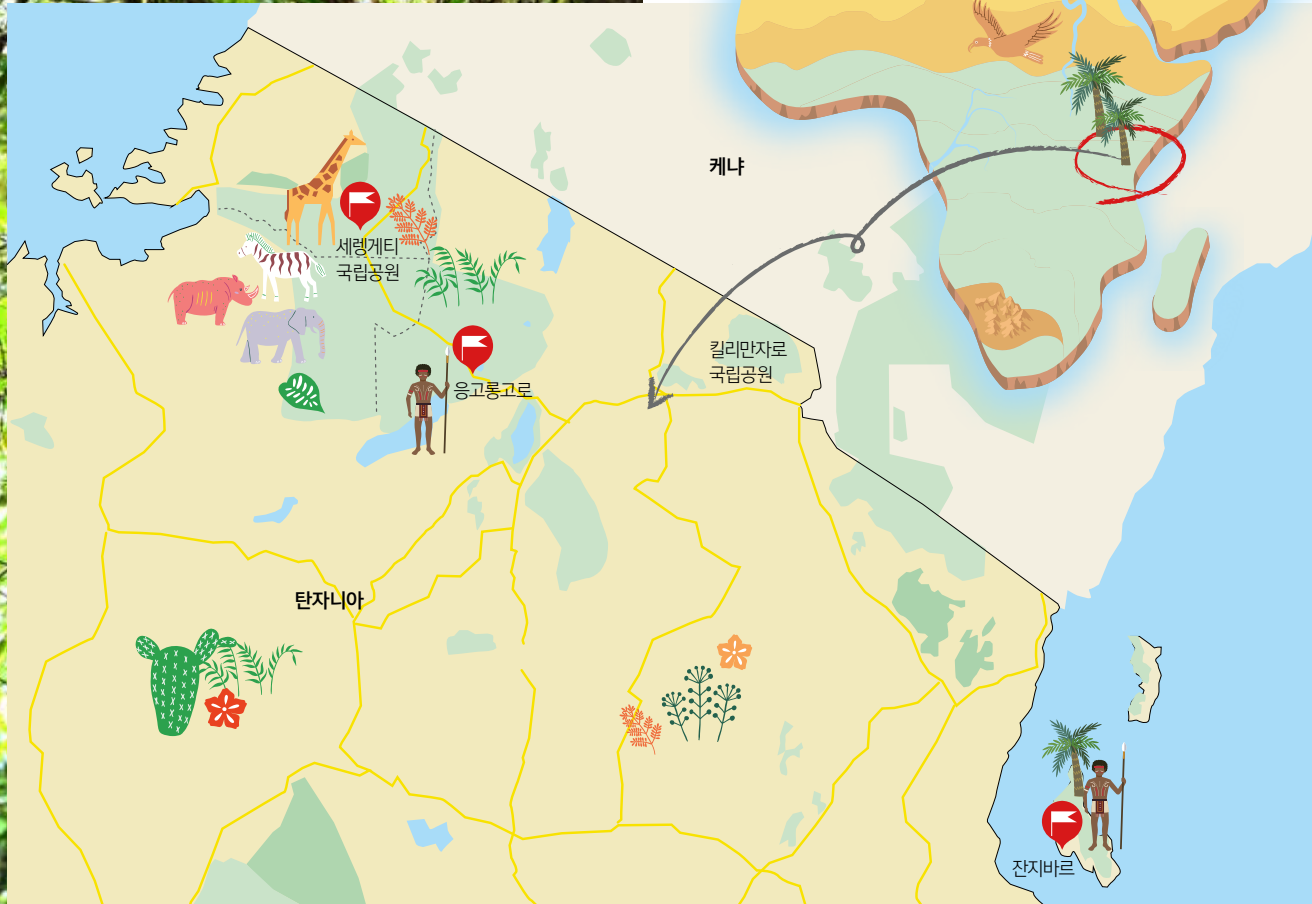
1 스파이스 투어에서
접한 생 계피
2 욱두구 열매
3 템보 호텔 앞 해변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3



★ INFORMATION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인연

탄자니아와 우리나라가 수교한 것은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덕분이다. 1970년대 김 전 회장은 탄자니아 대통령이 영빈관을 짓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건립을 제안했다. 탄자니아는 공사대금을 달 길이 없었고, 김 전 회장은 탄자니아에 널려 있는 면화로 공사대금을 대신 받았다. 영빈관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이를 계기로 한국은 탄자니아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언어

탄자니아 사람들은 스와힐리어(Swahili)와 영어를 사용한다.



교통

아프리카 직항편이 지난해 취항하면서 여행이 다소 편리해졌다. 에티오피아 직항편인 에티오피아 항공(ET)이 주 5회(월·화·수·목·토) 인천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운항한다. 약 12시간이 소요된다. 기종도 습도와 기압 조절 기능이 탁월한 드림라이너 787-8로 쾌적하다. 아디스아바바에서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공항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중동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보다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뒤 연결편을 이용하는 것이 비행시간이 짧아 피로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시차

고원 지역인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15~27도다. 세렝게티는 오전과 야간에는 쌀쌀한 경우가 많아 패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잔지바르의 기온은 섭씨 21~29도다. 한국과의 시차는 6시간이다.

비자

우리나라 국민이 탄자니아를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탄자니아는 지난 10월부터 전자비자 발급제도를 도입해 비자 발급이 편리해졌다. 발급 비용은 50달러다.

비자 사이트 <https://eservices.immigration.go.tz/visa/>

화폐

100탄자니아실링은 약 50원

항열병 예방접종 필수

탄자니아에 입국하려면 항열병 예방접종을 받고 이 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입국 10일 전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항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공항에서 벌금 50달러를 내야 한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권고 사항이다.



통신

여행자들은 비용이 저렴한 현지 유심(U-Sim)카드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탄자니아는 유심 카드의 가입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불편하다. 10일 동안 양쪽을 번갈아 써본 결과, 국내 통신사 로밍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입장료

탄자니아 정부는 세렝게티를 195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원으로 들어가려면 외국인 1인당 7달러(약 8만원), 차 한 대당 35달러(약 4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 경비에 포함돼 있다.)

음식

탄자니아의 주식은 우갈리(Ugali)와 쌀이다. 우갈리는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로 풀을 썬듯이 옥수수가루를 냄비나 솥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열을 가해 찰기가 생기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다 쇠고기나 닭고기 요리, 튀긴 생선 등을 곁들여 먹는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쌀도 주식으로 한다. 동남아시아나 다른 아프리카 쌀과 달리, 탄자니아의 쌀은 우리나라 쌀처럼 차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맛에 아주 잘 맞는다.



숙소



세렝게티에서는 글램핑 시설인 로지(lodge)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을 느끼기에 좋다. 세렝게티 중심부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중저가 수준인 이코마 로지를 추천한다. 응고롱고로 근처의 경우 분화구와 가까운 카라투(Karatu)의 쿠두 로지가 호평을 받고 있다. 잔지바르의 럭셔리한 해변 호텔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스톤타운 안에 있는 다우 팰리스 호텔은

16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이 인상적이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